「靑邱歌謠」의 收錄作家에 대한 考察

崔　東　元*

Ⅰ.

「靑邱歌謠」는 「周氏本 海東歌謠」(海周)의 卷末에 附篇으로 붙어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海周」는 周時經님이 「海東歌謠」의 乾篇만을 얻어 이에 다소 교정을 가하여 朴謙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轉寫케 한 寫本인데, 이 寫本이 六堂 崔南善님의 손에 넘어가 所藏되다가 6·25 때 소실하였으며, 그 底本인 原寫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靑邱歌謠」는 이 寫本들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 金三不님의 「校注本 海東歌謠」에 이것이 실려 있어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本稿에서도 이 자료를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靑邱歌謠」에는 7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有名氏의 작품이 76수이고 '孟嘗君歌'라는 無名氏의 작품이 1수이다. 그러나 周時經님은 「海周」에서 金壽長의 작품 117수 다음에 "下三章은 靑邱歌謠를 據하야 此에 積載함"이라 전제하고 3수의 시조를 싣고 있다. 그러니 이 金壽長의 작품 3수는 본디는 「靑邱歌謠」 속에 들어 있던 것이며, 따라서 「靑邱歌謠」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수는 원래 80수였음을 알 수가 있다.

有名氏 76수의 작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金友奎·金兌錫·朴熙錫·金振泰·文守彬·李德涵·金默壽·金重說·金斗性의 9명이다. 그런데 金斗性의 이름 아래 19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 끝에 붙인 後序의 내용은 "右朴君汝大 卽余故人也"라 하여 朴汝大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汝大'는 '古今唱歌諸氏'와 「甁窩歌曲集」의 作家目錄 등의 기록을 통해서 朴文郁의 字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19수의 일부분이 朴文郁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마는, 어디부터가 朴文郁의 작품에 해당하는

* 釜山大 人文大 敎授

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沈載完님은 여러 時調集에 이 작품들이 나타나 있는 양상을 검토한 결과로써 이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靑邱歌謠」 通番 58과 59의 2수가 金斗性의 작품이고 60번 이하의 17수가 朴文郁의 작품이다. 즉 「靑邱歌謠」 通番 60의 "世上사람들아……" 아래에 朴文郁이라는 작가명을 밝혀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누락했던 것이다.[1]

「靑邱歌謠」에 수록된 작품의 作家別 首數는 다음과 같다.

金友奎 11	金兌錫 4	朴熙錫 3
金振泰 26	文守彬 1	李德涵 3
金默壽 6	金重說 3	金斗性 2
朴文郁 17	無名氏 1	(계 77수)

이와 같이 作家數 10명에 作品數 76수인데, 이 作家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金壽長과 이들 작가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8世紀 後半期의 시조문학과 歌壇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Ⅱ.

「靑邱歌謠」에는 個別作家의 작품 끝에 대체로 後序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조문학 연구를 위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英·正祖 당시에 활동한 歌人·歌客들은 대부분이 지체가 낮은 서민계층들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자료는 극히 희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더욱 그런 느낌이 절실한 바가 있다. 더구나 이 後序들은 金壽長이 직접 썼다는 점에서 그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한층 더한다고 말할 수 있다.

「靑邱歌謠」에 실려 있는 10명의 작가 가운데 後序가 붙어 있는 사람은 金友奎·金兌錫·金振泰·金默壽·金重說·朴文郁의 6명인데, 이 가운데서 金兌錫을 제외한 5명의 後序에는 모두 '老歌齋金壽長書'니 혹은 '老歌

1)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硏究」(世宗文化社, 1972), pp.18~19 참조.

齋書'라고 한 記名이 밝혀져 있다. 金兌錫의 後序에는 "金君德而 性本騷雅 好風景 樂朋友 熟知景 能筆法"이라는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을 뿐으로 筆者의 記名은 없다. 그러나 다른 5명의 後序들을 모두 金壽長이 썼다는 점으로 보거나, '金君德而'니 하는 등의 표현으로 보아 이것 역시 金壽長이 쓴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위의 6명과 金壽長과의 交分關係를 살펴보면 金友奎와 朴文郁과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金壽長 자신이 金友奎에 대해서는 "金君聖伯 與交道甚密"이라 말하고 있으며, 朴文郁에 대해서는 "吾以此相對敬亭山"이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기에 충분하다. 金友奎와는 나이도 비슷하여 "聖伯年齡辛未 我庚午"라 밝히고 있는데, 金壽長의 生年이 肅宗 16년이고 金友奎가 肅宗 17년으로 한 살의 차이이다.

金兌錫과 金振泰에 대해서도 '金君德而'니 '金君君獻'이라고 한 표현으로 보아 이들 역시 金壽長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고 하겠다. 金重說은 金鼎熙(字 子彬)의 아들이며, 金默壽는 金聖厓(字 爾淑)의 아들로서 다 같이 父子間에 歌客이었으며, 金重說과 金默壽는 金壽長이 아끼던 후배 가객이었다.[2]

金友奎·朴文郁·金重說·金默壽 등은 '古今唱歌諸氏'에 그 이름이 밝혀져 있는 바로써도 그들이 널리 알려진 歌客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金友奎는 "世皆謂名揚矣"[3]라고 할 만큼 그 이름이 드러났었다.

金兌錫과 金振泰에 대해서는 그들이 歌客이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金壽長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면 그들 역시 歌唱을 할 수 있는 歌客들이라 생각된다. 金振泰는 「靑邱歌謠」에 26수라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당시에 활약하던 대표적인 시조작가의 한 사람임을 알겠는데, 그의 작품에 대하여 金壽長은 "金君君獻之作 意旨超越 響韻淸絕 不染俗態 巫峽之蕭森 琦語瓊辭 蓬瀛之仙語"

2) 崔東元, 「古時調論」(三英社, 1980), p.260 참조.
3) 「靑邱歌謠」의 金友奎 作品 後序.

라 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시조작가이며, 金壽長이 '金君君獻'이라 할 만큼 친분을 가진 사이인 데다, 여기에 18世紀 後半이 서민출신의 가객들에 의한 창곡의 전성기라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때 그 역시 歌唱에 능한 歌客이라 생각하여 무리는 아닐 것이다.[4]

金兌錫의 작품은 「靑邱歌謠」에 4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밖에 다른 歌集에 2수의 작품을 볼 수 있어 그의 작품은 모두 6수가 전하고 있다. 「靑邱歌謠」에 수록된 4수의 작품 가운데는 長時調가 1수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매우 淫亂한 것이지마는 長時調가 가진 성격의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5] 18世紀는 長時調가 매우 발달했던 시대이요, 그 가운데서도 英祖一代는 가장 왕성했던 最全盛期였다. 그리고 長時調는 胥吏出身의 가객들에게 애호되면서 그들의 歌樂 생활 속에서 발달했던 문학이다.[6] 이런 점으로 미루어 극히 淫亂하기까지 한 長時調를 짓고 있는 그를 歌客으로 파악해서 지나침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서 「海東樂章」에 전하는 또 한 수의 長時調는 그가 歌客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다.

> 玉樓紗窓 花柳中의 白馬金鞭 少年들아 긴노리 七絃琴과 笛필이 長鼓嵇琴 알고 져리 즑기나냐 모르고 즑기나냐 調音體法을 날다려 뭇게되면 玄妙ᄒᆞᆫ 문리를 낫낫치 니르리라 우리는 百年 三萬六千月日의 이갓치 밤낫 즑기리라[7]

이 長時調를 통해서 당시의 그들의 풍류적인 생활을 알 수 있으며, 특히 "調音體法을 날다려 뭇게되면 玄妙ᄒᆞᆫ 문리를 낫낫치 니르리라"고 한 대목은 金兌錫이 音律에 뛰어난 歌客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온 바로써 金友奎·朴文郁·金兌錫·金振泰·金重說·金默壽 등은 金壽長의 同僚나 후배로서 시조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歌客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金壽長이 경영하던 '老歌齋'에 출입

4) 沈載完님도 그를 '歌客作家群'에 넣고 있다.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硏究」 p.280.)

5) 저넘어 쇠앗슬 두고 손쌕치며 애써간이
말만ᄒᆞᆫ 삿갓집의 헌덕석 펼쳐덥고 년놈이 ᄒᆞᆫ되누어 얽어지고 틀어졋다 이제는 얼이북이 叛奴軍에 들거곤아
두어라 모밀쩍에 두杖鼓를 말려 무슴ᄒᆞ리요

6) 崔東元, 長時調의 全盛期 再論, 「古時調論」, p.95 참조.

7) 沈載完, 「歷代時調全書」(世宗文化社, 1972), 通番 2101.

하여 함께 풍류를 즐기던 사람들이며, 그리하여 金壽長은 이들의 작품을 「靑邱歌謠」에 수록하고 작품 뒤에 後序까지를 붙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文守彬의 작품은 「靑邱歌謠」에 1수가 실려 있을 뿐이며, 이 작품도 널리 유포되지 못한 듯하여 「樂府」(서울大本), 「靑丘永言」(가람本), 「甁窩歌曲集」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古今唱歌諸氏'에 그의 이름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歌客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 名列順序로 미루어 金壽長이나 金友奎보다 나이가 지나치게 떨어지지는 않은 거의 同年輩였다고 생각된다. 「甁歌」의 作家目錄에 "字士章 肅宗朝書吏"라 소개된 것으로 그 역시 金壽長과 같은 書吏出身이었음을 알 수 있다. 「靑邱歌謠」에는 文守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없으나, 그는 金壽長과 같은, 胥吏出身의 가객이었으며 단 1수에 지나지 않지마는 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金壽長과는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된다.

「靑邱歌謠」에 실려 있는 10명의 작가 가운데 7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歌客들이었다. 이 7명을 제외하면 朴熙錫·李德涵·金斗性의 세 사람이 남게 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검토하기로 하겠다.

Ⅲ.

朴熙錫은 「靑邱歌謠」에 3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며 그에 대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海周」의 '作歌諸氏'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작가에 관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다. 그의 작품 3수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평범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없다.

「靑邱歌謠」에 실려 있는 3수의 작품은 後代歌集 속에서의 重出을 거의 볼 수 없는데, 다만 이 가운데서 "뫼쏘리 놀려슬아……"라는 것이 「甁窩歌曲集」과 「樂府」(서울大本)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집에는 작가명이 朴熙瑞로 되어 있는 것이다. 朴熙錫과 朴熙瑞를 과연 동일한 사람으로 볼 것

이냐가 문제인데, '석'과 '서'는 類似音으로 訛傳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런 訛傳이 '錫'을 '瑞'로 다르게 표기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朴熙瑞에 대한 작가 소개를 「甁歌」와 「樂府」(서울大本)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朴熙瑞 字敬甫 善琴善筆有名 英宗朝 同知(甁歌, 作家目錄)
朴熙瑞 字敬甫 肅宗朝 同知(서울大本 樂府)

이와 같이 「甁歌」에서는 '英宗朝'라 하고 「樂府」에서는 「肅宗朝」라 하고 있으나, 그가 활약하던 시대는 肅宗朝라기보다는 英祖朝라 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가 만일 金壽長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海東歌謠」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靑邱歌謠」에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甁歌」의 作家目錄에 "善琴善筆有名"이라고 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그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善琴'으로 유명했다면 歌唱에도 능한 사람이었으리라 추측되고, 따라서 金壽長과도 교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아뭏든 朴熙錫 역시 시조작가였을 뿐 아니라 唱과도 무관하지 않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李德涵의 작품은 「靑邱歌謠」에 3수가 실려 있는데, 이 작품들도 후대에 널리 유포되지 못한 듯하여 「甁窩歌曲集」에 再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이 3수밖에 없다. 李德涵에 대하여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어서 「海東歌謠」(周氏本)의 '作歌諸氏'에도 그의 姓名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甁歌」의 '作家目錄'에는 "肅宗朝 吏判"이라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風謠續選」 跋文의 記名에 "聖上二十一年 丁巳仲多上浣 資憲大夫 前行同知中樞府事 江陽李德涵"이라 하여 '李德涵'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風謠三選」에 李德涵이라는 작자명으로 '偶吟'이라는 五言律詩 1수가 실려 있는데, 작자에 대하여 "德涵 字景浩 號眞愚堂 江陽人"이라 소개하고 있다.

「風謠續選」과 「風謠三選」은 「昭代風謠」와 함께 委巷詩人의 대표적인 시집이다. 「昭代風謠」가 英祖 13년(1737)에 간행된 뒤, 60년마다 간격을 두고 「風謠續選」(正祖 21년, 1797)과 「風謠三選」(哲宗 8년, 1857)이 간행되었다. 특히 「風謠續選」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委巷詩壇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던 시대로서 가히 委巷文學의 全盛時代였다. 具滋均님은 「朝鮮平民文學史」에서 英祖中期로부터 純祖初期에 이르는 약 60년간(대략 1746~1810)을 '委巷文學의 全盛時代'라 하고, 이 시대를 松石園詩社時代라고도 하였다.[8] 이와 같이 委巷文學의 全盛期를 이룩한 것은 松石園詩社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松石園詩社에는 委巷詩人뿐 아니라 士夫詩人들도 이곳에 놀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9] 松石園詩社의 盟主는 千時慶(?~1818)인데, 「風謠續選」은 이 千時慶과 張混에 의하여 選輯되었다. 그리고 松石園詩社詩人의 대부분은 「風謠續選」의 後半과 「風謠三選」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음을 본다.[10]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李德涵이 「風謠續選」의 跋文을 쓰고, 한편 그의 漢詩가 「風謠三選」에 실려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 李德涵은 士夫詩人이면서 松石園詩社에 자주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千時慶과 張混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委巷詩人들과도 교분이 있었을 것이다. 「風謠續選」의 跋文을 썼다는 것은 그 選輯者인 千時慶과 張混과의 교분도 교분이지마는 그가 委巷文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에 협력하려는 마음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靑邱歌謠」에 있는 시조작가 李德涵과 「風謠續選」·「風謠三選」에 실려 있는 李德涵은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 委巷文學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委巷詩集의 跋文을 쓰고, 자신의 詩作品까지가 委巷詩集에 실린 사람이라면 그에게 시조작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李德涵과 金壽長과의 교분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8)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文潮社, 1948), p.82 참조.
9) 同書, p.84 참조.
10) 同書, p.85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李德涵이 委巷詩壇에 출입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생각할 때, 歌客들과도 교분을 가지면서 老歌齋에도 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金壽長이 그의 작품을 「靑邱歌謠」에 수록한 것도 이런 관계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李德涵 역시 歌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하겠다.

李德涵이 老歌齋에 출입하여 歌客들과 교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金壽長과는 나이의 차이가 많았을 것이다. 「靑邱歌謠」는 英祖 40년(1764)에서 英祖 45년(1769)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그 당시에 金壽長의 나이는 75세에서 80세의 高齡이었다. 李德涵이 「風謠續選」의 跋文을 쓴 것은 正祖 21년(1797)이니 「靑邱歌謠」 편찬 당시와는 약 30년의 거리가 있다. 李德涵이 이 跋文을 쓸 때에 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알 수 없지마는 만일 70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靑邱歌謠」 편찬 당시에는 40 전후의 장년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시조를 짓고 歌客들과 교분을 가지기도 한 것은 젊은 시절부터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Ⅳ.

「靑邱歌謠」에 金斗性의 이름으로 19수의 작품이 실려 있지마는, 이 가운데 17수는 朴文郁의 작품이고 金斗性의 작품은 2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金斗性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2수의 작품이 실려 있을 뿐이며 아무런 참고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 2수의 작품이 後代의 다른 가집에 더러 나타나 있음을 보는데 작가에 대한 소개 내용이 각기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집에 나타나 있는 양상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秋月이 滿庭호듸……(靑謠, 通番 59)

「靑邱歌謠」: 金斗性

「서울大本 樂府」: 金斗性 英宗朝 光恩副尉十七歲作

「甁窩歌曲集」: 金箕性(作家目錄: 英宗朝 光恩副尉)

「六堂本 靑丘永言」: 金箕性 光恩副尉八歲所作
寒碧堂 죠탓말 듯고……(靑謠, 通番 59)
「靑邱歌謠」: 金斗性
「서울大本 樂府」: 金斗性
「甁窩歌曲集」: 金箕性

이와 같이 각 가집에 따라 작가명이 金斗性과 金箕性으로 混記되어 있고 두 사람을 다같이 光恩副尉라 일컫고 있기도 하여 걷잡을 수 없다. 요는 金斗性과 金箕性이 동일한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金斗性과 金箕性이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고, 이 두 사람을 함께 光恩副尉로 일컫고 있는데 먼저 金斗性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丁未 定淸衍郡主婚於金斗性 號光恩副尉 斗性卽參議相翊之子也(英祖實錄 卷 105, 41年 乙酉 閏二月)

英祖 41년에 淸衍郡主를 金斗性과 定婚하고 金斗性을 光恩副尉라 일렀는데, 金斗性은 金相翊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淸衍郡主는 莊獻世子(思悼世子)와 惠慶宮洪氏에서 태어난 첫딸로서 正祖에게는 누이동생이 되는데 英祖 30년(1754)에 탄생하였다. 이 기록으로써 金斗性이 光恩副尉에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 이후에 正祖 元年까지에 걸쳐서 金斗性에 관한 기록은 5,6군데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竄金相翊於淸州牧 相翊被劾後 自劃仕路 累被罪罰 而猶遂巡 是日 相翊以備堂詣闕外 稱病不入 上曰 有一律下敎 而敢如是乎 命補永宗僉使 尋配忠州 其子光恩副尉斗性亦罷職(英祖實錄 卷120, 49年 癸巳 二月)

이에 의하면 英祖末葉에 金相翊은 彈劾을 받기도 했으며 竄配되기도 하고, 그 아들인 光恩副尉는 罷職되었음을 알 수 있다. 正祖 元年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罷光恩副尉金斗性職 敎曰 駙馬異於外朝無處義之可言 苟欲處義 在家俟勘可也 一

自金相翊處分之後 處在郊舍 有若出城者 然相翊之栲棘當無已時 則爲副尉之入城欲作別般節拍乎 且貴主無城外之行 副尉此擧 卽行不得之事 不但處義之乖當 殊無尊王室之義 有是命(正祖實錄 卷4, 元年 丁酉 11月)

이것은 正祖가 卽位한 몇달 뒤에 光恩副尉를 罷職하면서 내린 敎書이다. 그 때 金相翊은 栲棘罪人[11]으로 流配된 몸이었고, 光恩副尉는 城外에 추방되어 郊舍에서 근신하는 신세이었던 것 같다. 入城이 금지된 光恩副尉가 이를 어기고 入城을 하자 "진실로 處義하려면 집안에 박혀 있으면서 죄를 묻는 것을 기다림이 옳다"(苟欲處義 在家俟勘可也)라고 하여 敎書로써 엄명을 내린 것이다. 金斗性은 正祖에게는 妹夫가 되는 사람이다. 正祖는 누이동생인 淸衍郡主를 보거나, 어머니 惠慶宮洪氏에 대한 정곡으로서도 金斗性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뭏든 위에 든 기록만으로도 金斗性과 그의 아버지인 金相翊은 英祖末에서 正祖初 무렵에 매우 역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英祖實錄」에 의하면 金相翊은 持平·修撰 등을 거쳐 承旨·大司成·副提學·監司·吏曹參議 등을 역임한 文臣으로 비교적 순탄한 仕路를 걸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英祖末부터 역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僻派에 관련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正祖는 時派를 가까이 하고 僻派를 멀리하였으니 金相翊은 정치적으로 역경에 놓이게 되고 그의 아들인 金斗性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 '光恩副尉 金斗性'이 '光恩副尉 金箕性'으로 그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正祖 14년부터인데, 이 이후부터 그에 대한 기록은 모두 金箕性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正祖 14년(1790)에 冬至兼謝恩正使로 청나라를 다녀온 일이 있으며, 그 뒤에 書寫官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2] 이로 보아 관리로서는 별다르게 重用되지를 못

11) '栲棘'은 귀양 간 사람이 있는 집의 담이나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밖으로 둘러 치는 일을 말함. 죄가 중한 경우에 하는 형벌의 형식으로 圍籬安置보다 더 중한 형벌임.

12)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에 그가 宜寧縣監(純祖 卽位年)과 戶曹參判(純祖 5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王朝實錄」을 잘못 해독한 것이다.

했던 것 같다.

純祖가 즉위하여 時派가 세력을 잃게 되고 僻派가 정권을 잡자 金箕性은 先冤을 왕께 아뢰는 疏를 올리고 있는데,[13] 이는 그의 정치적인 浮沈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純祖 11년(1811)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辛巳 光恩副尉金箕性卒 敎曰 此都尉 身許國家 同共休戚 宜享天年 至此遽逝 貴主之此時景像 已不可言 況慈宮驚心惜痛之懷 仰而悶迫 禮葬一依淸璿郡主例爲之 東國副器一部一體賜給 仍命成服日 遣內侍致祭 祭文當親撰以下(純祖實錄 卷 14, 11年 辛未 7月)

이것은 金箕性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純祖가 내린 敎書인데, 앞에서 보인 正祖의 敎書(正祖 元年 11月)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다. 純祖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에 예를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貴主의 이 때의 景像은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慈宮의 놀라고 애통하는 심회는 우르러보기에 悶迫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貴主'는 물론 淸衍郡主를 가리키는 것이며, 慈宮[14]은 惠慶宮洪氏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禮葬을 치르되 오로지 淸璿郡主의 경우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淸璿郡主는 惠慶宮洪氏의 두째딸이며 淸衍郡主에게는 동생이 되는 데 純祖 2년(1802)에 죽었다.[15]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여 '光恩副尉 金斗性'과 '光恩副尉 金箕性'은 同人異名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 金斗性이 金箕性으로 改名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그들 부자가 정치적으로 역경에 놓였던 正祖初의 어느 무렵이 아니었을까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正祖實錄」에서 보면 14년부터는 金箕性으로 나타나 있다. '斗'와 '箕'는 다 같이 28宿에 드는 별의 이름으로 이 두 별을 '箕斗'라고도 하니, 金斗性이 金箕性으로 改名한 것을 이로써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13) 「純祖實錄」 卷 1, 卽位年 庚申 8月, "光恩副尉金箕性疏 陳先冤"條 참조.

14) '慈宮'은 王世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고, 王世孫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그 죽은 王世子의 嬪을 뜻하는 말이다.

15) 李秉岐·金東旭校注, 「한등록」(民衆書館, 1961)의 부록으로 붙인 '年譜' 참조.

金斗性이 正祖初 무렵에 金箕性으로 改名했다는 사실로써 볼 때, 「靑邱歌謠」와 「樂府」(서울大本)에는 작가명이 金斗性으로 나타나 있고, 「甁歌」와 「靑丘永言」(六堂本)에는 金箕性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작가명이 金斗性으로 표기된 前者의 두 가집은 18世紀 後半에 편찬되었고,[16] 작가명이 金箕性으로 표기된 後者의 두 가집은 19世紀에 편찬된 가집이기 때문이다.[17]

光恩副尉가 淸衍郡主와 定婚한 것이 英祖 41년(1765)인데 그 해에 淸衍郡主의 나이는 12세였다.[18] 그렇다면 光恩副尉의 그 때의 나이도 淸衍郡主와 비슷했을 것이다. 金壽長이 「靑邱歌謠」를 편찬한 것은 英祖 40년에서 英祖 45년에 걸쳤는데, 金斗性의 작품을 수록한 해는 英祖 45년으로 보여진다.[19] 이 때에 金斗性의 나이는 17,8세 전후였을 것이다. 각 가집에 "光恩副尉十七歲所作"이니, 또는 "光恩副尉八歲所作"이니 하는 기록이 있는데, 8세에 시조를 지었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十七歲所作'이라고 한 것은 그 가능성도 충분하며, 「靑邱歌謠」의 연대와 부합되는 점도 우연한 일치라고만 할 수 없다.

위에서 논급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靑邱歌謠」에 실려 있는 金斗性은 '光恩副尉 金斗(箕)性'이며, 그가 2수의 시조작품을 남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을 부정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靑邱歌謠」는 「癸未本 海東歌謠」 편찬 이후에 그 보수를 위한 작업으로

16) 「靑邱歌謠」는 英祖 40년(1764)에서 英祖 45년(1769)에 걸쳐서 편찬되었다. 「樂府」(서울大本)은 그 편찬년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18世紀末로 잡아 무방할 것이다.(崔東元, 「古時調論」, p.89 참조)

17) 「甁窩歌曲集」의 편찬년대는 '正祖年間'으로 보기도 하고(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硏究」 p.10), 純祖年間으로 보기도 한다.(姜銓燮, 松谷編「古本靑丘永言」의 復原問題, 국어국문학 47집).

18) 淸衍郡主는 英祖 30년(1754)에 탄생하였다. 註 15 참조.

19) 「靑邱歌謠」에 수록된 작가를 살펴 보면 金重說·金斗性·朴文郁이 끝부분에 실려 있으며, 金重說과 朴文郁의 作品 後序의 年紀가 다같이 英祖 45년인 '己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海周」의 '作歌諸氏'에 보면 金友奎부터 金默壽까지의 7명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金重說·金斗性·朴文郁의 세 사람의 이름은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세 사람의 작품은 「靑謠」에 가장 뒤늦게 수록되었으며, 「海周」의 '作歌諸氏'의 名單에는 추가해서 기록하는 것을 빠뜨린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 실린 작가들은 대체로 金壽長과 교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金友奎·文守彬·朴文郁·金兌錫·金振泰·金重說·金默壽 등은 金壽長의 同僚나 혹은 後輩가 되는 歌客들이었다. 그리고 朴熙錫과 李德涵도 金壽長과 교분이 있었으리라 짐작되고, 그들 역시 歌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靑邱歌謠」는 金壽長이 75세에서 80세 사이의 高齡期에 편찬된 가집이며, 더구나 金斗性의 작품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80세 때에 수록한 것으로 보이니, 이렇게 高齡의 그가 10代의 젊은 사람인 光恩副尉의 작품을 과연 수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靑邱歌謠」에 나타나 있는 시조작가 金斗性은 光恩副尉였던 金斗(箕)性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同名異人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金壽長과 交友하던 金斗性이라는 歌人이 있었고, 그의 작품이 이름이 같은 光恩副尉 金斗(箕)性의 작품으로 후세에서 訛傳되었던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靑謠」에 나타나는 金斗性은 光恩副尉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다"[20]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온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靑謠」에 등장되는 金斗性이 '光恩副尉 金斗(箕)性'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며, 따라서 光恩副尉 金斗(箕)性은 「靑謠」에 2수의 작품을 남긴 시조 작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V.

「靑邱歌謠」에는 金壽長의 작품이 3수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이로 보아 「癸未本 海東歌謠」 편찬 이후에는 거의 작품 제작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만일 3수 이외에 그의 작품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편찬한 가집의 마무리 작업이었던 「靑謠」에 싣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金壽長은 「癸未本 海東歌謠」 편찬 이후에는 작품의 제작보다 歌唱에 주력하고 '老歌齋'

20) 崔東元, 「古時調論」, p. 274.

를 중심으로 한 풍류적인 생활에 탐닉한 것으로 보인다. 「靑邱歌謠」도 이와 같은 '老歌齋'의 생활 속에서 이룩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靑謠」에 수록된 작가 10명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 가운데 7명은 그의 同僚나 先輩가 되는 歌客들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老歌齋歌壇'의 중심 멤버들이라 하겠다. 朴熙錫과 李德涵을 歌客이라 규정할 수는 없지마는 그들 역시 歌唱도 할 수 있었고, '老歌齋'에 출입도 하던 풍류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老歌齋歌壇'의 동반자라 해서 무방할 것이다. 金斗性은 「靑邱歌謠」 편찬 당시에 10代의 젊은 나이였다. 그의 작품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歌壇에서 그의 작품이 그만큼 화제가 되었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金斗性의 작품 역시 '老歌齋歌壇'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靑邱歌謠」는 「海東歌謠」의 보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靑謠」는 단순히 80수의 시조를 후세에 더 전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金壽長의 晩年의 歌樂生活과 나아가서 그를 중심으로 한 '老歌齋歌壇'의 면모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靑邱歌謠」는 金壽長을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老歌齋歌壇', 나아가서 18世紀 後半의 時調文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룬 收錄作家에 대한 고찰도 이런 관점에서 시도된 부분적인 작업이었다.